

전남대 5·18연구-연세대 DJ도서관 협약



전남대 5·18연구소(소장 홍성흠·왼쪽)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연구 및 학술활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전남대 5·18연구소 제공>

무등사회복지관, 스마트폰 활용교육



무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금희)은 최근 복지관 내 컴퓨터실에서 KT IT 서포터즈단원들이 방문해 지역주민 등 20여명과 함께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펼쳤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제공>

세종의료재단, 장애인 복지증진 협약



세종의료재단(이사장 구제길)은 7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광주장애인종합협회(회장 서용규),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순)과 지역 장애인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의료재단 제공>

나주경찰 '캠퍼스 안전지킴이' 발대식



나주경찰(서장 이유진)은 최근 동신대 회의실에서 학·경 협력방범체계 구축을 위해 '제2기 캠퍼스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최기호(화순우체국)·임형선씨 장남 환주(간호사)군 선순남씨 장녀 김보라(송인초)양=12일(토) 낮 12시 광주 Y웨딩컨벤션 2층. ▲박웅열(광주시청 건설행정과장)·김숙자씨 차남 래택(벤처기업)군 강영춘(주 가이아 우리환경 대표)·김혜진씨 차녀 보라(회사원)양=12일(토) 오전 11시 광주 라보웨딩 홀. ▲조정래(광주시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회장)·이현주 씨 장남 시영(전남일보 지역사회부 기자)군 김윤채·윤정순 씨 막내 주현(전남일보 정치부 기자)양=12일(토) 낮 12시 광주 신안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동창회

▲광주 송의고 총동문회(회장 최경채) 임원진 워크샵=12일(토) 보성다비치콘도 010-3631-998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승림성도백(경마, 주시,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항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에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어 통번역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모집 ▲제25기 광주전남생태귀농학교=16일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매주 수요일 금요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062-373-6183. ▲요양보호사 무료교육생=여성장이신 분들 무료교육, 광주·전남 요양보호사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 체험·홍보, 손발맛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지사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지사자원봉사센터 062-613-

백화그리기로 재능 기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가족백화봉사단은 지난 6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하안마을에서 '재능나눔 백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삼성전자 임직원과 가족, 수완 청년회 등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담벼락 130여m 길이에 빛깔이 만개한 봄날을 콘셉트로 백화를 그렸다. 하안마을은 광주사업장 인근 도시형 농촌마을로, 임직원 주말농장과 연을 맺은 뒤 마을 청년회에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가족백화봉사단에 백화작업을 요청,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류혜경·서해연 서광병원 대표원장 부부 후배 위해 1억 기탁

류혜경·서해연(왼쪽에서 다섯번째·네번째) 서광병원 대표원장 부부가 지난 5년 동안 후배들을 위해 1억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류혜경 대표원장은 최근 모교인 전남대의 발전과 전남 의대 내과학교실 후진양성을 위해 5000만원을 쾌척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1억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내놓았다. 류 원장은 지난 1982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현재 광주 서광병원 대표원장으로 복한이 탈주된 무료 건강검진, 생활보호대상자 무료 수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의료 봉사를 개원 이래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류 원장은 지역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제41회 보건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류혜경 서광병원 대표원장은 "지역 병원에서 지



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도 우수한 의사가 계속 배출돼야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태권도 아트 퍼포먼스 '파랑새의 꿈 안중근' 연출가 오해룡씨

우석대 교수·재학생 등 직접 제작... 국내서 호평

"태권도는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를 무시하고 태권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대중들에게 외면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랑새의 꿈 안중근'은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공연에서 태권도의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무용과 연기 등 다양한 요소를 접목시켰습니다. 덕분에 관객들에게 태권도 매력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학과장 최상진)가 안중근 의사의 일화를 바탕으로 만든 태권도 아트 퍼포먼스 '파랑새의 꿈 안중근'이 미국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재학생 30여 명과 태권도학과 교수 등 총 50여 명이 합심해 만들었다. 더욱 의미 있는 사실은 시나리오부터 무대 조명, 안무, 음향에 이르기까지 1년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외부의 도움 없이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오는 30일 미국으로 출국해 한 달간 뉴욕,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초청공연 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이번 공연에서 무용과 연기, 무대조명을 맡은 연출가 오해룡(34)씨는 자신이 참여한 공연이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들뜬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다. "최상진 교수님과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정말 고생해서 만든 공연인데 국내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미국까지 진출하게 돼 가슴이 벅차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 안중근 의사를 통해 태권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돼 더욱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연출을 맡은 오씨는 무대에 오르는 이들이 전문 배우가 아니었지만 태권도에 대한 열정으로 팔뚝 뭉쳐 성공적인 공연을 펼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원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가



수 서태지와 아이들을 보며 댄서를 꿈꿨던 그는 우석대학교 무용학과에 진학했다. 지난 2000년 문화부장관배 전국 청소년 그룹댄스 경연대회 특별상, 2008년 천안흥타령축제 전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스마트폰 활용교육

무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금희)은 최근 복지관 내 컴퓨터실에서 KT IT 서포터즈단원들이 방문해 지역주민 등 20여명과 함께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펼쳤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제공>

세종의료재단, 장애인 복지증진 협약

세종의료재단(이사장 구제길)은 7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광주장애인종합협회(회장 서용규),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순)과 지역 장애인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의료재단 제공>

나주경찰 '캠퍼스 안전지킴이' 발대식

나주경찰(서장 이유진)은 최근 동신대 회의실에서 학·경 협력방범체계 구축을 위해 '제2기 캠퍼스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무용·연기 접목된 태권도 매력 美서도 통할 것”

태권도 아트 퍼포먼스 '파랑새의 꿈 안중근' 연출가 오해룡씨

우석대 교수·재학생 등 직접 제작... 국내서 호평

"태권도는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를 무시하고 태권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대중들에게 외면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랑새의 꿈 안중근'은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공연에서 태권도의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무용과 연기 등 다양한 요소를 접목시켰습니다. 덕분에 관객들에게 태권도 매력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학과장 최상진)가 안중근 의사의 일화를 바탕으로 만든 태권도 아트 퍼포먼스 '파랑새의 꿈 안중근'이 미국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재학생 30여 명과 태권도학과 교수 등 총 50여 명이 합심해 만들었다. 더욱 의미 있는 사실은 시나리오부터 무대 조명, 안무, 음향에 이르기까지 1년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외부의 도움 없이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오는 30일 미국으로 출국해 한 달간 뉴욕,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초청공연 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이번 공연에서 무용과 연기, 무대조명을 맡은 연출가 오해룡(34)씨는 자신이 참여한 공연이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들뜬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다. "최상진 교수님과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정말 고생해서 만든 공연인데 국내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미국까지 진출하게 돼 가슴이 벅차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 안중근 의사를 통해 태권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돼 더욱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연출을 맡은 오씨는 무대에 오르는 이들이 전문 배우가 아니었지만 태권도에 대한 열정으로 팔뚝 뭉쳐 성공적인 공연을 펼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원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가



수 서태지와 아이들을 보며 댄서를 꿈꿨던 그는 우석대학교 무용학과에 진학했다. 지난 2000년 문화부장관배 전국 청소년 그룹댄스 경연대회 특별상, 2008년 천안흥타령축제 전

국 춤 경연대회 일반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댄스에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댄서를 꿈꿨던 그가 공연연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봤던 공연 '태양의 서커스' 때문이다. "서커스라고 하면 동물들이 묘기를 부리고 불을 뿜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태양의 서커스는 연기 등 다양한 요소를 접목해 세계적인 예술작품이 됐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인 태권도로 가장 세계적인 공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무대 진출을 앞둔 젊은 연출가는 공연문화에 대한 아쉬움과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영화는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공연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소수만이 즐기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 연인과 함께 부담없이 편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그게 바로 연출가 오해룡이 그리는 파랑새의 꿈입니다.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호남대 호백성씨 '외국인 k-pop 콘테스트' 대상

GFN광주영어방송 주최로 최근 영암 왕인 박사 유적지에서 열린 '외국인 k-pop 콘테스트'에서 호남대 한국어학과 호백성(3년)씨가 참여한 중국 유학생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호씨는 이번 대회에서 트로트 가요인 '땀'을 열창해 대상을 받았다. 대만문화대학의 교환학생인 호씨는 이날 무대에서 백댄서로 함께 출연한 허커신(한국어학과 4년)·류지아(한국어학과 3년)·천자오원(호텔경영학과 2년)·치엔마위엔(한국어학과 3년·왼쪽부터) 씨 등 중국유학생 4명의 안무와 함께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을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치과의사회, 백미 30포 기탁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박정열)는 최근 서구청을 방문해 지난 총회에서 기념품으로 들어온 백미 30포를 관내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서구청에 기탁했다. <광주시치과의사회 제공>

Advertisement for Myung-ho's funeral home,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